“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다음 주일은 기독교교육주일입니다.
  기독교교육주간 새벽기도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역할 공동체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각 공동체 별로 모이시면 됩니다.
- 다음 주일은 공동체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오후 2시에 있습니다.
- 10월18일(토)에 서울숲중앙교회 주일학교 교사 20여명이 방문합니다.
-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선교 바자회 기증물품을 다음주 10/19(주일) -10/24(금)까지 받습니다. 자연예배당 현관 안쪽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한호남 · 정승희 집사 가정 (감사)
박태규 · 전향옥 집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형배 집사 · 오강자 권사 가정(감사)
조이서 집사 (생일 감사)
윤화자 집사 (감사)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1호
2025년 10월 12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서로를 세워가는 사랑의 빚

긴 연휴의 끝자락입니다. 연휴기간 비가 제법 내리더니 이제는 짧은 가을이 스쳐지나가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이번 연휴동안 사람들은 여러 지역을 많이 이동했고 해외 이동도 많아 전국 공항에 몰린 인파들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sns의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한 지인의 sns 내용이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오랜기간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느라 지쳐있는 어머니를 위해 연휴를 맞아 며칠간 아버지를 언니에게 맡기고 처음으로 모녀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고생하셨을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가 즐거워하실 일정을 짜고, 어머니 입맛에 맞을 식당을 찾고, 어머니가 편안해하실 호텔을 예약했는데 여행을 다녀오고 나니 주변 사람들이 여행 재미있었냐고 묻는 질문에 쉽게 좋았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고 힘들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대답만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가는 곳마다 여긴 어디냐? 먹는 것마다 이건 뭐냐? 보는 물건마다 이건 얼마냐? 하는 대화마다 뭐라는 말이냐?를 끊임없이 물으셨고 일정과 교통, 먹거리와 통역까지 신경써야하는 딸에게는 재밌는 여행보다는 힘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의 의미는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어머니와의 여행 사진을 하나하나 정리하다보니 생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어머니가 딸에게 하셨던 여긴 어디냐? 이건 뭐냐? 이건 얼마냐? 뭐라는 말이냐? 등의 반복된 질문은 어린 딸이었던 자신이 자라며 어머니에게 수없이 했던 질문이었고, 일정을 짜고 먹거리를 고민하고 잠자리를 돌보며 짧은 며칠동안 어머니를 살폈던 일들은 딸이었던 자신을 위해 어머니가 오랜시간 해오셨던 일이라는 것 이었습니다. 쉽게 잊고 살았던 것을 다시 깨달은 후, 이제는 어머니가 주셨던 사랑의 표현과 행동들을 내가 드려야하는 때가 왔다는 생각에 어머니와 함께 한 여행은 힘듦에서 행복한 추억으로 바뀌었고 여행하며 조금 더 잘해드릴걸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살고있는지 잊고 삽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지 잊고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13장8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질 수 밖에 없고 그런 사랑의 빚은 우리가 평행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빚은 세상의 빚처럼 우리를 압박하거나 움츠러들게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서 넘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올 해도 가을이 되어 사랑방공동체학교 연합 선교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산청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국내외 농촌선교를 주된 사역으로 하고 있는 민들레공동체와 아이부터 어른까지 60여명의 지체들이 모두 목공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여 구원의 메세지를 전하는 예닮교회(예들문화선교사역)에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갚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큰 수해로 여전히 터전을 복구중인 민들레공동체와 갑작스런 보관창고 이전과 목공 작업중 일어난 큰 사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닮교회에 지금 우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때를 따라 주었던 사랑을 다시 때가 되어 딸이 엄마에게 전하듯이, 서로의 필요를 살피고 서로 사랑의 빚을 갚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방법입니다. 이 특별한 여정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와 물질로, 시간과 마음으로 함께 해 주세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다운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
<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92, 559 / 351
기도 :
성경 : 여호수아 10장
제목 :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다

1. 내용: 가나안 남부 지역 정복을 완성하다 (What)
<문단구분>
1~15절 기브온 전투의 대승리
16~27절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최후
28~43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정복 완성

2. 의미: 전투에서 승리하는 방법 (Why)
1)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이다.
2) 대적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력전을 펼친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3. 적용: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How)
1) 최종 승리를 믿고 안심하자
2)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자
3) 승리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자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양

요즘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비몽사몽간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일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치 나를 보호해 주는 주문처럼 습관적으로 읊조리게 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수가 없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라는 고백인지도 모르겠다.

언제가 설교 중에 양의 습성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난다. 양의 연약함은 시력이 나빠 길을 잃기 쉽고, 자신을 보호하고 위협에 대항할 수 없는 신체구조를 갖고 있어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라 한다. 또한 양은 생각이 모자라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동물로 묘사되기도 한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양과 비유하면서 고집 세고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말하고 있다. 양은 푸른 초장에서 매일 풍성한 꼴을 먹고 안전한 울타리에서 사는 게 익숙하다 보면 목자에 대한 감사함을 잊게 된다. 그러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듣고 찾아온 목자의 품을 경험하며, 양은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너무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 주를 향한 갈망도 없고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기도도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도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권태스러울 만큼의 익숙함에 편히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나인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믿고 바라보며 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의 기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이 가까이 느껴지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된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오늘도 나는 "주님!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나를 주께 가까이 이끄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따뜻한사랑방 강춘자 권사

주일공동예배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오전11시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 편 95 : 1-3	인도자
*예배의 찬송	25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로마서 3 : 23-24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421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누가복음 17 : 1-19	설교자
성가대 찬양	183	미리내사랑방
설 교	“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29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10(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영동 전경희 / 봉헌위원 : 장성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삶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

나병환자 열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열 사람의 나병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언약의 바깥에 있다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홉 사람은 치유를 입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가던 방향 돌려. 가장 값진 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홉 사람은 그대로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내달렸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근원을 아는 한 사람은 가던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은혜에 감사로 반응 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서병욱 집사

어린이학교 5학년 친구들의 추석 이야기

❤ 2025년 추석 일기를 소개합니다!

· 김주은 : <10월 6일 추석날에~>

추석날에 나는 양산 친할머니 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긴 여정이 있었다. 오는 차에서 도착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오후 12시 20분 쯤 출발했는데 집에 오니까 밤 9시였다. 차에 갇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특히 너무 심심한 게 제일 힘들었다. 멀미할까 봐 폰도 마음대로 못 보고 해서 어떻게 9시까지 차에서 버텼는지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ㅋㅋ 그리고 야식으로 라면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 최리야 : <아빠와 4박 5일 캠핑>

연휴 첫 날부터 아빠랑 캠핑을 갔다. 나는 텐트 치는 걸 도와드렸다. 그러고 나서

첫째 날, 게임, 드라마, 책 / 둘째 날, 게임, 드라마, 책 / 셋째 날, 게임, 드라마, 책 / 넷째 날, 게임, 영화, 책 / 다섯째 날, 게임...을 했다. (엄마한테는 비밀)

책은 <불량한 자전거 여행 1, 2, 3, 4> 긴 거 시리즈로 다 읽었고, <곰돌이 푸 이야기>도 다 읽었다. 암튼 재미있었다.

❤ 이번 추석 연휴 어때요?

· 김주은 : 추석 연휴가 길어서 좋다. 왜냐면 늦잠을 자는 게 정말 좋고 숙제도 여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TV도 많이 볼 수 있다.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 최리야 : 외할머니와 사촌들이 놀러 와서 더 좋았고 친할머니 집에 못가서 아쉬웠다. 아빠랑 캠핑도 가서 더 좋았다.

❤ 연휴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을 소개해주세요.

· 김주은 : (1) 친할머니 댁에 가서 물회랑 회랑 해물파전을 먹었다.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멍게도 조금 먹어봤다! 바다 맛이 아주 많이 느껴졌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도 가보았다. (2) 처음으로 5, 6학년 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놀았다. '인생네컷'도 찍고 마라탕도 먹었다. 디에트르아파트 단지에서 놀았는데 리야랑 윤아 언니가 아는 사람들 6명을 불러서 같이 놀았다. 술래잡기를 했는데 재밌었다. 또 리야는 저녁 먹으러 집에 가고 남은 6학년 언니들이랑 저녁으로 편의점 음식을 먹었다. 언니들은 비빔면, 불닭 등을 먹었고 난 라면과 삼각김밥을 먹었다! 그 다음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아주 좋았다.

· 최리야 : 사촌 언니와 다니 언니가 내 생일파티 준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 사촌 동생과 언니들이 돈을 모아서 머랭, 컵케이크, 치즈케이크, 초코프레첼을 만들어 줬다. 그리고 집을 예쁘게 꾸며주었다.

명절, 추억 만들기

모처럼 긴 추석 연휴를 보냈다. 우리 가족은 명절이 되면 고향인 부산을 방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명절이 힘들었다. 친척들의 집을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순회 방문해야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 아닌 친척들이라 명절에 방문하게 되면 제사 지내는 모습을 한 발 물러서 바라보고 있어야 해서 더욱 곤혹스러웠다. 집집마다 다니며 같은 종류의 음식을 계속 먹어야만 해서 배탈도 많이 났다.

이런 명절의 풍속도를 바꾼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였다. 팬데믹 때문에 친지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었고 제사를 꼭 지내야한다고 주장해 오신 아버지도 연로하셔서인지 자식들의 요청을 수용하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고 집에서 가족이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그 무렵 여동생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매제가 새로운 가족으로 들어왔다. 40대의 젊은 매제는 우리 가족의 평균 연령을 낮추었다. 그리고 특유의 열정과 에너지로 분위기를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켰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다.

변화된 명절 모습을 소개하자면, 맛있는 음식을 골라 식당에 가거나 함께 요리해서 밥상을 차린다. 그리고 볼링, 탁구, 장기, 오목, 고스톱, 루미큐브(보드게임), 영화감상, 노래방, 목욕, 시장 구경, 스타크래프트(컴퓨터 게임) 등 그동안 평범했던 명절에 다양한 스케줄이 생기고 온갖 놀이 일정으로 시간을 꽉 채우게 되었다.

이제 나는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부산을 오고 가는 긴 시간이지만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상쾌하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처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더욱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변화와 헌신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루터기사랑방 박태규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331장, 421장
성 경 : 누가복음 15장 11-24절
말 씀 : 아버지의 마음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가자지구 >
   고립된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이 막힘없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파괴된 도시를 보며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깃들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개척자들-해초>
   개척자들에서는 '가자를 향한 천대의 마들린호' 선단을 통해 해초(김아현)를 가자로 파송했습니다. 무사히 가자지구에 도착하여 구호물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추석명절 오고가는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 몸이 아프신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고향에 다녀오느라 먼 길을 오고 간 식구들과 공동체에서 다른 친지들과 함께 추석을 지낸 식구들 모두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명절 중이지만 공동체를 비울 수 없어 돌아가며 당직을 하고 사무실을 지키며 방문객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끝에는 지인의 도움으로 생활공동체 식구들이 서울에서 멋진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기쁜 명절 선물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